

목양칼럼

소리 없는 화음(和音), 소리 없는 설교(說教)

소리 없는 화음을 들어보셨습니까?
 소리 없는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 보았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속에 다녀온 알마티에서.

지난 주일(11일)은 알마티 퀸즈장로교회 설립 25주년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오전에는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고 오후에는 기념 감사 찬양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찬양제에는 우리 단기선교팀을 비롯해 12팀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중에 4명의 농아 장애우로 구성된 찬양팀도 있었습니다.
 맨 앞의 인도자가 수화(手話)로 솔로(?)를 하면 그 솔로의 양옆과 뒤에 서 있던
 장애우들이 중간 중간에 손으로 화음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후에 설명을 들어보니 “나를 진주와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의 찬양이었습니다.
 고난 속에 만들어진 진주와 같은 존재가 바로 자기들을 감사한 것입니다.
 마음의 소리로만 드러진 수화 사중창, 어떤 화음보다 아름다운 화음이었답니다.

“제가 설교해본 지가 7년이나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었던 현지교역자, 한인 지도자 세미나 때에
 어느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교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제도와 상황 속에서
 임으로 하는 설교 대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 오신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삶으로 외쳤던 설교가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그를 존경하며 따르는 사람들과 그가 끼친 다양한 영향력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침묵의 찬양이 더 간절할 수 있고,
 침묵의 설교가 더 진실할 수 있음을 이번 알마티선교 중에 깨달았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 (718)358-7789 http://www.kapcq.org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김성국
부목사	김도현/OPEM (347)450-7736	김재형 (347)761-7663	오인수 (267)205-1295
전도목사	이신은 (646)220-8324	다민족선교사	송요한 (917)940-0596
전도사	고부영/1교구 (917)423-5298	계화자/2교구 (646)641-8944	이양미/3교구 (516)717-8720
	황혜원/중국교포, 중국어부 (718)825-6969	천위지/중국어부 (347)965-0343	함미희/4교구 (917)359-2857
교육전도사	이명옥/영어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소유영/유치부 (917)318-7030
	팽정은/유년부 (646)423-3583	차명화/중등부 (703)819-8785	배인구/청년부 (917)736-3429
	손요한/중학교부 (646) 789-1118	창다/중국어부 (929)204-6868	최진식/ (646)887-7419
직원	정진규/관리 (718)939-0005	홍현숙/서무 (201)759-0820	신성근/방송
찬양대	1부 예배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예배 / 호산나 찬양대	3부 예배 / 시온 찬양대
	지휘 / 소유영	지휘 / 최진식	지휘 / 윤원상
	반주 / 최미희 이승은	반주 / 송소영 김보라	반주 / 윤현주
			Shen de Guia/OPEM
			4부 예배 /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 최경희
			반주 / 김정윤 임세현



주후 2017년 6월 18일
 제 43-25호

주일예배

1부 / 오전 8:30 김재형 목사
 2부 / 오전 10:30 오인수 목사
 3부 / 오후 12:15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67	1,3부 / 다같이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2,4부 /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전성호 장로 2부 / 김원도 장로 3부 / 김수산 장로 4부 / 이무근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고린도후서 1:21-24	사회자
찬양	CHORUS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 오셨네	임마누엘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시온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마음에 성령을	김성국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191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부흥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김성국 목사
* 표는 일어섬			

주일 저녁 예배

글로리아 싱어즈 제 6회 정기연주회

오후 4:00 (6/18/17)	사회: 김성국 목사
예배선언	사회자
찬송	482
기도	김수산 장로
성경봉독	소철화 권사
요한계시록 14:1-5	
말씀	전덕영 목사
새노래로 찬양하라	
글로리아 싱어즈	
창립 20주년 기념	
제 6회 정기 연주회	

인사	김명희 권사
광고	사회자
찬송	288
축도	장영춘 목사

QPEM English Service

12:00pm	Rev. Peter D. Kim
Praise	Congregation
Scripture	Presider
Hebrews 12:1-11	
Prayer	Dn, Jenny Whang
Sermon	Rev. Peter D. Kim

“The Father’s Discipline to the one He Loves”

Богослужени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8:30am	Пастор В.Сон
Хвала	Все вместе
Слово из Библии	сестра В. Левченко
2ое Коринфянам (2Co)5:17-21	
Молитва	брат Владимир Лян
Проповедь	Владимир Сон
Новое творение	

수요 기도 예배

제 54기 전도폭발 수료 예배

오후 8:00 (6/21/17)	사회: 최원일 집사
예배선언	사회자
경배와 찬양	다같이
기도	이숙규 교사
헌신찬양	제 54기 훈련생
간증	박은혜, Benita Choi
	석영지 훈련생
성경봉독	정재원 훈련자
요한복음 14:6	
찬양	킹스콰이어
말씀	김성국 목사
모태신앙, 길을 찾다	
수료증 수여	김성국 목사
훈련보고 및 광고	사회자
찬송	505
축도	김성국 목사

中文堂崇拜

早上 9:30/下午4:00	司会:陈玉捷传道
赞美	会众
经文	司会
玛(Mal)1:6a	
证道	陈玉捷传道
我的美德显出我的罪孽	

새가족 환영회

2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

어린이 찬양집회

"Jesus is my Superhero Part III"

주관: 하랑예찬 6/23(금) 오후 8시, 본당

2017년 전교인 여름 수련회

주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자"
강사: 김승욱 목사. 일시: 7/2(주)-4(화)

교회소식

6월 성령의 달 - 성령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행사 및 모임

6/18(주) 글로리아싱어즈 음악회	6/21(수) 제 54기 전도폭발 수료예배
6/23(금) 하랑예찬 주관 어린이 찬양집회	6/25(주) 교회학교 졸업예배
6/28(수) 축복이 흐르는 예배	7/2(주)-4(화) 전교인 여름 수련회
7/5(수) 지도원 성경 공부	7/7(금)-9(주) 할렐루야 2017 대누육 복음화 대회

알림

1. **글로리아 싱어즈** 창단 20주년 기념, 제 6회 정기연주회가 오늘 저녁 예배시간에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은혜넘치는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2. **담임목사님과 카자흐스탄 단기선교팀**이 현지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지난 목요일(6/15) 귀국하였습니다.
3. **단기선교팀 전체기도회**가 오늘 오후 6시에 양순관에서 있습니다.
4. **하랑예찬이 주관하는 어린이 찬양 집회 "Jesus is my Superhero Part III"**가 6/23(금) 오후 8시에 본당에서 개최됩니다. 모든 다민족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5. **2017년 전교인 여름 수련회 안내** 1) 주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자" 2) 일시: 7/2(주)-4(화) 3) 강사: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담임) 4) 장소: Hudson Valley Resort
6. **할렐루야 2017 대누육 복음화 대회**에서 둘째 날(7/8,토) 퀸즈장로교회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과 다음 주일(6/25) 저녁 예배를 마치고 연습이 있습니다. 모든 찬양대원, 합창단원, 경찬팀은 연습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파킹장 사용 안내** 그동안 교회 파킹장으로 사용되어 온 JS189 학교 주차장이 NYC 친환경 녹색 공원 조성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되는 장소는 후리싱병원 응급실 옆에 위치한 주차장입니다. - 6/25(주)까지는 JS189 학교와 후리싱병원 응급실 옆 주차장 사용이 모두 가능합니다. - 7/2(주)부터는 반드시 이전된 후리싱병원 응급실 옆 주차장을 교회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주보 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중보기도요청** 라마단(이슬람 금식기간 5/27-6/25)기간 동안 러시아어권 회중들이 라마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무슬림들이 회심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 **2017 여름학교 안내** 1) 기간: 7/5(수) - 8/11(금) 2) 대상: Kindergarten - 12학년(SAT Class) 3) 문의: 여름학교 사무실(210호) (718)886-4646
10. 6/24(토) **토요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권사 (다음주: 안수집사부부)
11. **가족기념 장학기금** 김혜숙 집사, 이충규 교우, 오영순 집사, 이진성 청년, 이진화 학생, 정해성 집사, 정주영 집사, Calvin Dang 어린이

새가족

전정림 (바울 2F11, 최매화 - 비비, 시욱 - 유치, 서준 - 영아), 조 선 (에스터 2F12, 유가미 - 유년), 김영근 (청년대학 3Y1), 김예담 (청년대학 4Y1),

교우소식

- 결혼** 박종범 군(박영규 장로, 박정숙 권사의 장남, 4F1)과 김미연 (2Y2)양의 결혼식이 6/24(토) 오후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 개업** 허 경 (2F16) 교우와 김 화 (2F13)교우께서 'Wink Wink Eyelash' Shop을 개업하였습니다. 주소: 159-15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전화: 929)395-4555
- 졸업** 김서희 6/14 Touro College
- 이사** 이영준 집사 (이승재 집사 3FM2)가정, 13 Bluejay Lane, Levittown NY 11756
- 소천** 박선자 집사 (박 훈 집사 모친 3F1)께서 6/14(수)에 소천하시어 장례를 마쳤습니다.

금식기도사

월 / 박순자 백종우 김태선 김미건
수 / 윤영란 김준애 김숙화 임 정 이인화
금 / 남미화 김미선 계대원 권향련 박은주

주 / 주광자 박지은 송동욱 박지은
화 / 박노운 강연홍
목 / 김려화 임영자 안미영 김선희
토 / 김예휘 김미선 계대원 권향련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영아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아부실(지하)
	2부	오전 10:30		유아부		유아부실(2층)
	3부	오후 12:15		유치부		유치부실(2층)
	4부	오후 02:00		유년부		유년부실(4층)
	오후	오후 04:00		초등부		초등부실(3층)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오후 12:15	중등부실(4층)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4:00		토요모임 오전 9:00		
	러시아어	오전 08:30		고등부실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오후 12:15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금요모임 오후 6:30	유아부실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금요모임 오후 8:00	중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출석

1부 예배	336	러시아어 예배	22	영아부	43	중등부	51
2부 예배	340	청년 선교부	85	유아부	43	고등부	55
3부 예배	327	주일 저녁 예배	158	유치부	43	청년 대학부	45
4부 예배	162	새벽 예배	981	중국어 교육부	12	교회 학교 예배	473
영어 예배	161	수요 기도 예배	217	유년부	97	주일 낮 장년 예배	1709
중국어 예배	276	새가족 환영회	11	초등부	84	주일 낮 총계	2182

6월 봉사위원

책임 장로: 임 정 장로

헌신기도(다음주)	임 정 장로	정길표 장로	송동을 장로	황인섭 장로
책임권사	이희정 권사	박순자 권사	허영미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이정숙 오영자 홍지혁	임승룡 이숙규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김희은 오성태 송현규 김선희 장지숙 정민영	김선의 박새롬 정형진 조희주 권동은 조한결 김서희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김정란 차광혁 채송자 강석춘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조인범 이숙규 김미권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나인에 김희은 박석미 한원희	김서희 박새롬 조희주 권동은 신예지 박재상 조한결 정형진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김지한	윤지현	박철홍

화요일 새가족 환영: 마리아 바울 주일식사: 마리아 (다음주: 브리스가)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비미션인터네셔널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김현(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은순(단자니아)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 (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지승남(미국 캠퍼스) / 최동훈(케냐)

이번 주의 소요리 문답

문 101) 첫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소서” 라는 첫째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여 친히 처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월 - 사도신경 / 찬송가 94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26장 24-32절

예수를 얻은 자는 천하보다 귀한 것을 얻은 자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왕과 총독 앞에 서있습니다. 비록 손과 발은 묶여 있지만 그는 자신을 죄수가 아닌 하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받는 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왕과 총독에게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29)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가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도 천하보다 귀한 예수를 만났으니 당당하게 자랑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화 - 사도신경 / 찬송가 546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27장 1-8절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여정에 나섰습니다.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으로 향해하고 길리기아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 시에 이르러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복잡하고도 험한 길입니다. 성경에 이 짧은 구절에 “간신히”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내하며 이루는 나라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지만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싸워야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 또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건히 서있기를 소원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수 - 사도신경 / 찬송가 412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27장 9-26절

아무리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품 안에서라면 고요하며 평안합니다. 바울의 만류를 거부하고 바다를 나선 배는 결국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거센 바람에 쫓겨 가다가 결국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 목숨만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이르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2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 앞에 어떤 풍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한 마디면 모두 고요하고 평안하게 됩니다. 이 믿음과 평안을 가지고 바울은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우리 가정도 바울처럼 폭풍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평안하며 평안의 소식

을 나누기를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목 - 사도신경 / 찬송가 488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27장 27-44절

인간 가능성의 끝은 하나님 기적의 시작입니다. 배가 풍랑으로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어느 육지에 가까워졌습니다. 사람들이 헤엄쳐 도망가려고 하자 바울은 절대로 배를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죄수들에게 전했습니다. 다시 배가 육지에 가까이 다가갔고 큰 물결에 깨져 버렸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다 죽이려 했으나, 바울을 생각해서 다 살려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276명 모두 다 육지에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잠잠히 기다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구원하셨습니다. 배도 깨지고 인간적인 방법이 다 그치자 이제 모두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가정 또한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능력을 증거하는 하루 하루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금 - 사도신경 / 찬송가 430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28장 1-15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서 역사하심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군병과 죄수들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자 원주민들이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한 독사가 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바울이 죽지 않자 원주민들이 아주 놀랍게 여기며 바울을 신이라 생각했습니다. 보블리오라 하는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서 바울이 그를 위해 기도했고, 은혜로 나았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이 섬에서 환대받으며 로마에 가기까지 건강히 잘 보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가정 또한 삶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토 - 사도신경 / 찬송가 505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28장 16-31절

하나님 나라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 중심에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 없이 가르쳤습니다. 이 문장으로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그 뒤의 일은 우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담대하게 거침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넘어 온 세상에 퍼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도시, 가정 구석구석에 아름답게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